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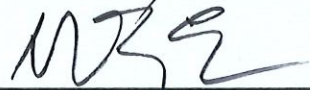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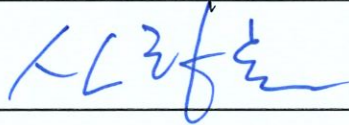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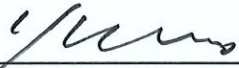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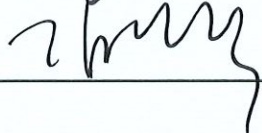


- 충주시립미술관건립 국제지명 설계공모 -

최종 심사결과 보고서

2025. 12. 19.

위원장	김성홍
위원	성주은
	신창훈
	이진오
	조항만
예비위원	김정수

충주시립미술관 건립 국제지명 설계공모 제출안 심사의견서

구분	팀명
당선작	유아이에이 건축사사무소
<p>심사위원회는 내륙 중심도시인 충주시의 대표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충북 지역의 문화예술 거점으로 기획한 본 설계공모에 제출된 6개 안에 담긴 다양한 관점과 접근, 창의적 해법, 깊이와 수준에 감명을 받았다. 충주시, 공모전을 준비한 운영위원회, 공모 실무팀을 대신하여 완성도 높은 안을 제출한 참가자의 노력과 열정에 깊이 감사드린다.</p> <p>심사위원회는 설계공모지침의 건축계획에서 제시한 기본방향, 항목별 세부지침, 다섯 가지 특별지침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호암지에 면한 대지의 특성과 조건, 충주시립미술관이 가져야 할 기본기능과 확장성, 건축물의 배치, 내부공간의 합리성과 효율성, 텍토닉(구조와 재료)의 정합성, 에너지 효율 해법, 공공건축물의 구현 과정에서의 도전과제와 실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p> <p>본심사에 앞서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는 설계공모 규정 및 지침과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였다. 대지 경계선 초과, 연면적 초과, 예정 공사비 초과, BF 규정 위반 가능성 등 지침에 어긋난 일부 안이 있었으나, 규정 위반의 정도가 심사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으며, 이를 고려하여 정성적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였다.</p> <p>공개발표와 질의응답에 이어 오랜 토론 끝에 심사위원회는 유아이에이 건축사사무소 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수상작은 전망형 미술관이라는 기획 의도와 특별지침에 제시된 정체성, 차별성·독창성, 기술·환경 혁신, 도전과제와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하였다.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와 구조적 해법으로 다양한 현대 미술품과 전시 방법을 수용할 수 있는 과감하고 독창적이지, 다음 단계의 설계, 시공, 운영 과정까지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고려한 완성도가 가장 높은 안이었다. 다양한 크기의 볼륨과 빛 환경의 4개의 전시관을 입체적으로 쌓고 이를 하나의 전망플랫폼으로 엮은 도시적인 현대 미술관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높은 층고의 장방형 전시장은 지역적 한계를 넘어 설치미술, 미디어 미술 등 새로운 형식의 전시를 기획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미술관의 기능(전시, 수장, 교육, 관람 등)을 충실하게 분석하고 반영한 평면은 매우 설득력이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제출안이 호암지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 공간을 계획했지만, 당선작이 이 점에서 특히 돋보였다.</p> <p>다만 설계공모전의 특성상, 제출된 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핵심 개념과 의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발주처인 충주시와 세부시설, 예산, 법규 등을 협의하여 초기의 안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심사위원회는 판단하였다. 특히, 서정적 풍경의 대지에 과도하게 드러날 높은 천장고의 전시장 매스는 근경과 원경, 인간적 척도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절토와 성토를 통해 호암지와 차단된 저층부의 개방은 제출안의 핵심을 변형하지 않으면서 조정될 것으로 판단했다.</p> <p>심사위원회는 당선작이 설계자, 발주처의 긴밀하고 열린 대화와 협력으로 충주시의 미술관을 넘어 기획, 설계, 시공, 운영의 전 과정에 걸쳐 공공건축물의 우수한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p>	

* 발표순

구분	팀명
입상작	SKM
<p>대지에 이르는 동선, 산책이라는 행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건축물과 대지 사이의 외부공간을 새롭게 정의하였다.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조형성과 훌륭한 수변공간 등 장소성이 돋보인 매력적인 안이었다. 지표층에서의 개방감, 자연과 호수로의 연결성, 미술관 내부공간의 기능, 전이와 매개 공간으로서 복도의 복합적 전략이 돋보였다. 직설적 형태의 참조체를 드러내지 않는 건축가의 접근법도 다른 몇 개의 안과 차별화되었다.</p> <p>다만, 미술관의 중심공간, 관람의 시퀀스, 운영 및 관리 동선 등 미술관의 공간구조를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하는 제안이 아쉬웠다. 곡선형 캔틸레버와 루프, 곡면의 유리벽이 설계안의 렌더링대로 실현되는 구체적 방안과 해법은 설계안에 충분히 제시되었다면 더욱 설득력 있는 안이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p>	
구분	팀명
입상작	아이레스 마테우스
<p>심사의 마지막까지 당선작 토론의 대상이 되었던 안으로, 대지의 고저 차를 이용해 도로 높이 이하로 단순한 기하학적 매스의 미술관을 배치하고, 이들 사이에 틈을 내어 마치 대지를 조각한 듯한 느낌을 주는 대지예술과 같은 시적인 미술관이었다. 반투명의 외벽재료는 호암지의 경관에 적절한 대비를 가지되, 과도하지 않은 독특한 존재감을 지니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호암지의 아름다움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p> <p>다만 가장 강조한 외부 중정은 혹한과 고온 다습한 한국의 사계절 기후 조건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있다. 자연지반의 중정도 강수가 많은 기후, 장애인을 포함한 관람 주 동선, 미술품의 반·출입을 고려할 때 실현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차별화되지 않는 4개 전시실의 낮은 층고와 예각의 평면, 인공조명 의존의 내부 공간은 다양한 매체와 방식의 현대 미술을 수용하는 데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p>	
구분	팀명
입상작	겐고 쿠마 & 어소시에이츠
<p>긴 장방형의 매스를, 호암지를 향해 흰 다음, 원경에서 바라보이는 여러 겹의 지붕 겹 인공 대지로 감싸고 다시 미술관의 내부 공간을 조율한 역(逆) 프로세스의 신선한 제안이었다. 그 결과 호암지 원경에서 바라보는 미술관은 매력적이었다. 자연, 건축, 미술이 중첩되는 장소로서 특별하다고 보았다.</p> <p>다만 이러한 위에서 아래로의 설계과정의 결과로 가변적인 전시 공간에 적정한지 의문이 드는 복잡한 평면이 만들어졌다. 건축가 특유의 구법이 내부 공간 특히 상부와 천장에 적극적으로 구현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 또한 동서 방향의 외벽을 투명하게 처리했는데, 이는 적절한 자연광과 전시 공간의 구분과 분절이 필요한 미술관의 기본 요구와 어긋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일반인의 접근을 계획한 지붕 공간에 장애인의 접근을 위한 엘리베이터 등이 필요하며, 경사가 급해 비·눈 등 기상 조건에 따라 보행이 가능한 경사로로서의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p>	

입상작	스티븐홀 아키텍츠
<p>제출안 중 건축면적을 최소화하면서 형태와 내부 공간에 집중한 매력적인 안이었다. 단순한 기하학적 평면의 사면을 비워내며 건축가의 오랜 건축언어가 녹아있는 독특한 수직적 조형성과 감각적인 내부 공간을 만들어 냈다. 현지의 재료(흙)를 이용한다는 아이디어가 실현된다면, 건축물 표현의 질감과 색채가 호암지의 풍경에 잘 동화되는 독특한 자기 완결적 미술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여러 개의 전시 공간이 적절히 분산되어 독립성을 가지면서도 중심 아트리움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방문객이 공간을 직관적으로 인지하며 경험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p> <p>다만 사면을 파고드는 외부공간으로 인해 호암지에 면한 서측과 도로에 면한 동측이 완충공간 없이 대면하게 되는데, 단차나 전이 공간 장치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남북으로 긴 대지를 활용하고자 담장을 두른 두 개의 정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출안에서 참조한 소쇄원의 담장처럼, 보다 열린 공원 개념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었다.</p>	
구분	팀명
입상작	유현준 앤 파트너스
<p>전통 건축의 누정과 한옥의 지붕을 모티브로 삼아, 다양한 질감과 표면의 재료, 역동적인 내·외부 동선, 비늘형 미디어 파사드 등 많은 아이디어를 담은, 마치 빛나는 아이디어가 가득한 선물 상자과 같은 제안이었다. 1층과 2층의 공간을 공용 문화 공간과 전시 공간으로 분리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기능적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였다.</p> <p>다만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하나의 건물에 집약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되거나 이질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으며, 실현 과정에서 해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요소도 있었다. 지형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외부공간의 다양성과 입체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1층의 주요 공간과의 적극적인 연계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기계 전기실과 설비 수직 라인의 연결, 누정에 대한 해석과 달리 과묵하고 폐쇄적으로 보이는 서측 입면, 필로티 하부 공간의 활용 등은 환경적 측면에서 현실적인 제안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다.</p>	

2025년 12월 19일

충주시립미술관 국제지명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성주은, 신창훈, 이진오, 조항만, 김정수(예비위원), 김성홍 (위원장)